이베로아메리카 제14권 2호 [2012. 12] : 65~92

라틴아메리카 급진좌파의 부상과 정당체제*

이 상 현**
(Yi, Sang-Hyun)

〈Abstract〉

The Emergence of the Radical Left and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lucidate the reasons of the emergence and success of radical left in 21th century in Latin American politics. In ess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servative shift of party systems and the absence of meaningful leftist party are the main reason for the emergence of the radical left in Latin America. To support this argument, the author examines two cases of the radical left in Latin America: Venezuela and Bolivia. In case of Venezuela, the pact of Punto Fijo in 1958 in which two main parties in Venezuelan politics -center-left AD and center-right COPEI- compromised to cooperate led to conservative shift of the Venezuelan party system. Also, the end of oil bonanza and the following economic crisis alienated the Venezuelan people from the extant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Therefore, Hugo Chavez' radical leftist program entirely replaced the old political system of Venezuela. In case of Bolivia, the collapse of established party system stemmed from the Bolivian presidential system,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스페인 · 중남미학과
E-mail: shyi@jbnu.ac.kr

so-called hybrid presidentialism in which members of the Congress decide who is going to be the president in case of runoff election. The hybrid presidentialism necessarily led to coalitional politics among political parties.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electoral coalition in the Bolivian politics is not to preserve party's identity but to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Under such circumstance, Evo Morales and his political party MAS superceded weak and characterless old political system with radical leftist agenda.

[Key Words: Latin America/ Leftist Politics/ Political Party System/ Venezuela/ Bolivia]
[주제어: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정당체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Ⅰ. 서론

1998년 집권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정권을 필두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좌파 정치의 부상이 활발하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한 풍운아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 모랄레스(Evo Morales, 2005-현재), 에콰도르의 자원민족주의자 코레아(Rafael Correa, 2006-현재) 대통령, 니카라과의 게릴라 출신의 혁명 지도자 오르테가(Daniel Ortega, 2007-현재) 대통령을 비롯하여, 부부가 권력을 주고받은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와 페르난데스(Néstor Kirchner, Christina Fernándes,

2003-현재), 노조지도자 출신으로 재선의 임기를 마친 브라질의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2003-2010)와 그 뒤를 이어 노동자당 정권을 재창출한 호세프(Dilma Rousseff, 2011-현재) 대통령, 남미의 전형적인 중도좌파 대통령들인 칠레의 라고스(Ricardo Lagos, 2000-2006)와 바첼렛(Michelle Bachelet, 2006-2010) 그리고 우루과이의 바스케스(Tabaré Vasquez, 2005-2010)와 무히까(José Mujica, 2010-현재), 중미 지역의 과테말라 콜롬(Álvaro Colom, 2008-2012) 정권과 엘살바도르의 푸네스(Maurició Funes, 2009-현재) 대통령 그리고 각각 정변으로 축출된 셀라야(Manuel Zelaya, 2006-2009) 대통령과 해방신학자 신부 출신의 파라과이 루고(Fernando Lugo, 2008-2012) 대통령, 마지막으로 2011년 집권한 페루의 우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치의 열풍은 대륙 전체에서 불고 있다.[1)]

〈표 1〉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권, 1998–2012년

국가	정당	대통령	당선연도
베네수엘라	Fifth Republic Movement /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Hugo Chávez	1998; 2000, 2006, 2012 재선
칠레	Partido Socialista de Chile (PSCh)	Ricardo Lagos Michelle Bachelet	2000 2006
브라질	Partido dos Trabalhadores (PT)	Luiz Inácio Lula da Silva Dilma Rousseff	2002; 2006 재선 2010
아르헨티나	Partido Justicialista (PJ)	Néstor Kirchner Ch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2003 2007; 2011 재선

1) Yi 2011. 본 연구의 일부 내용이 외교통상부 중남미국에서 발간하는 웹진 *Latin Energy & Resources*에 기고문의 형태로 출판되었음을 밝힙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상현. 2011.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의 부상: 원인, 특징 그리고 전망" *Webzine Latin Energy & Resources*, Vol. 1,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23-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Frente Amplio (FA)	Tabaré Vázquez José Alberto (Pepe) Mujica	2004 2009
볼리비아	Movimiento al Socialismo (MAS)	Evo Morales	2005; 2009 재선
온두라스	Partido Liberal de Honduras	Manuel Zelaya	2005
니카라과	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 Nacional (FSLN)	Daniel Ortega	2006; 2011 재선
에콰도르	Alianza País	Rafael Correa	2006; 2009 재선
파라과이	Alianza Patriótica por el Cambio	Fernando Lugo	2008
엘살바도르	Frente Farabundo Martí para la Liberación Nacional (FMLN)	Mauricio Funes	2009
페루	Gana Perú	Ollanta Humala	2011

19세기 초 스페인 및 포루투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이후로 라틴아메리카 정치사에서 좌파의 집권은 흔하지 않았다. 1959년 쿠바 혁명의 성공, 1970년 칠레의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 정권 아옌데의 집권 그리고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의 성공 등 일부 제한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분명한 집권으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1980년대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에서 실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과 1980년대 말 소비에트의 몰락은 이념적 측면에서는 물론 물질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명맥을 유지하던 좌파 정치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여러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좌파의 몰락으로 진단하였다(Castañeda 1993; Roberts 2002; Colburn 2002; Weyland 2004). 카스타네다(Jorge Castañeda)는 그의 1993년 저서 Utopica Unarmed: The Latin American Left After the Cold War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좌파가 쿠바를 제외하고는 집권도 혁명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사회변혁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소비에트의 몰락을 계기로 라틴아메리카 좌파, 특히

혁명 좌파의 암울한 현실을 진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좌파 정치가 주창하는 분배정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좌파 정치의 원동력이 되는 노동 및 대중 조직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혁명으로도 선거로도 집권하기 어렵다는 전망들과는 달리 좌파는 21세기에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보란 듯이 부상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정의를 내려 보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전통을 가진 정당에 의한 정치운동'을 기본적 개념으로 하며 '풀뿌리 사회운동과 반체제, 혁명 그리고 변혁적 목적을 지닌 정치세력'을 포괄한다. 한편 이러한 세력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분배와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현재의 사회계층 중 상대적으로 소외된 세력의 대중적 지지를 모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Cleary 2006; Panizza 2005).

양적으로 다양하게 증가한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는 그 특징과 성격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정치 또는 경제정책의 성향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들에 대한 분류를 실시하였다. 우선 대표적인 분류로는 국내외 학계와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급진좌파(radical left)"/"실용좌파(pragmatic left)"가 있으며 "급진좌파(radical left)"/"개혁좌파(reformist left)", "포퓰리스트 좌파(populist left)"/"사회민주주의 좌파(social-democratic left)" (Cleary 2006), "자유방임주의적 좌파(liberal left)"/"개입주의적 좌파(interventionist left)"(Madrid 2010), "맑시스트 좌파(Marxist left)"/"포퓰리스트 좌파(populist left)"/"사회민주주의 좌파(social democratic left)"(Walker 2008), "옳은 좌파(Right Left)"/"틀린 좌파(Wrong Left)"(Castañeda, 2006) 등 다양한 분류가 시도되었다. 대표적 분

류인 급진좌파/실용좌파의 경우 대미관계, 경제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 등을 주요 변수로 하여 급진좌파의 경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등을 그리고 실용좌파의 경우 브라질의 룰라, 칠레의 라고스와 바첼렛 등을 대표로 꼽고 있다(Cleary 2006). 또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변수로 한 분류인 자유방임주의적 좌파/개입주의적 좌파의 경우에도 전 정권부터 지속되던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브라질의 룰라, 우루과이의 바스케스, 그리고 칠레의 라고스와 바첼렛을 자유방임주의적 좌파로 공공지출 확대와 경제영역에서 국가 개입의 확대를 추구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그리고 에콰도르의 코레아 등을 개입주의적 좌파로 규정하고 있다(Madrid 2010).

살펴보았듯이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는 국가에 따라 이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의 국가적 차이에 주목한다. 즉 21세기에 부상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중 특히 급진 좌파에 주목하는 본 연구는 온건좌파와 달리 급진적 성향을 지닌 좌파가 어떻게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부상하였으며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왜 라틴아메리카의 특정 국가에서 급진 좌파는 부상하였는가? 이를 추동한 원인과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2]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2)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급진 좌파'는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의미를 지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이념과 형태를 지닌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에서 급진좌파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좌파 정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급진성'을 보이는 정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급진성'은 구체적 정치 행태와 정책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라틴아메리카 급진 좌파의 대표적인 정치 행태와 정책으로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집권 연장 추구, 포퓰리스트적인 리더십과 직접 정치의 강화, 사회주의 강화의 정치 목표 설정, 국유화, 규제강화, 시장 통제 등 경제 부문에서 국

본 연구의 목적인 급진 좌파 정치 부상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미흡한 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은 사례 연구들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권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겠다.

Ⅱ. 이론적 배경과 주장

21세기에 등장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치, 특히 특정 국가에서 집권한 급진좌파의 등장과 성공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위하여 우선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의 두 가지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등장한 좌파 정치의 집권이 개별 국가적 현상이 아닌 라틴아메리카의 대륙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멕시코와 콜롬비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예외가 존재하지만 라틴아메리카 각 국에서 좌파정치의 약진은 대륙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덧붙여 멕시코의 경우에도 좌파정당인 민주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이 비록 집권에는 실패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의 두 번째 특징은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가 과거와는 달리 이념과 행동이 비교적 온건하며 모든 정권이 선거를 수단으로 합법적으로 집권했다는 점이다. 즉 21세기 라틴아메

가 개입의 강화, 그리고 대외 정책적으로 반미와 반제국주의 등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좌파 정치 사례들 중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사례들이다.

리카에 등장한 좌파 정치는 폭력을 수단으로 혁명을 지향했던 과거와는 달리 제도 특히 선거제도를 존중하는 다른 행태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파업, 시위, 도로점거와 같은 투쟁의 경우에도 제도 내에서 시민불복종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이에 라틴아메리카 좌파에서 대표적인 급진좌파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저도 선거와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Yi 2012).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부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인 빈부격차를 들고 있다(Castañeda 1993; Cleary 2006; Levitsky and Roberts 2011). 즉 소득과 발전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빈부격차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정치가 활성화되는 자양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의 빈부격차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들의 빈부격차와 유사할 정도로 심각하며, 이러한 극심한 빈부격차가 좌파정치 부상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빈부격차의 존재가 빈부격차 해소에 좀 더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좌파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 부상의 국가별, 시대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은 물론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좌파정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부상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민주화와 선거 정치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Castañeda 1993; Cleary 2006; Buono and Lara 2006; Levitsky and Roberts 2011).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권위주의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민주화는 선거정치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또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선거 정치의 제도화는 대중동원과 정

치참여의 확대로 이어졌다(Buono and Lara 2006). 특히 원주민, 여성, NGO 등 새로운 사회세력에 의한 정치참여가 도드라졌다. 따라서 민주화와 이에 따른 정치 환경의 변화가 좌파정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와 선거정치의 제도화는 앞서의 빈부격차 변수처럼 좌파 정치 등장의 환경적 측면을 제공할 뿐이다. 결국 이 변수는 강력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집중하고 있는 급진 좌파 정치 부상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부상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세 번째 근거로는 1980년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피로와 실망을 들 수 있다(Buono and Lara 2006; Levitsky and Roberts 2011).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실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적자 축소,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약속한 경제성장과 빈곤축소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유권자들의 불만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좌파정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현실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이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신뢰의 저하가 좌파 정치의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의 부상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론 또한 급진좌파와 온건 또는 개혁 좌파로 달리 나타난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의 실패가 두드러졌던 아르헨티나의 좌파정치가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에 비하여 온건한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서 설명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요인으로는 국제자원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원민족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들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등 거대신흥국의 산업화는 자원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자원가격의 상승은 자원산업에서의 이윤확대를 가져 왔다. 결국 자원수출을 경제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경제가치가 커진 자원산업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를 주장하는 좌파 자원민족주의 정치세력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또한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 부상의 국가별, 시대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은 물론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좌파정치를 설명하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기존 연구의 주장들은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 특히 특정 국가에서 부상한 급진좌파의 집권 원인을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 특히 정당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정당체제의 이념적 균형의 부재 즉 정당체제의 우경화와 좌파 정치의 부재가 급진좌파 정치 부상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국가에서 일어난 급진 좌파 정당의 부상과 성공이 오랜 기간 동안 정당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보수 정당들 간의 권력독점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당체제의 이념적 불균형 속에서 이러한 정당체제를 주도하는 기존 보수정당의 실패는 선거정치의 활성화 속에서 좌파 정치, 특히 급진좌파 정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덧붙이자면, 기존의 보수적 정당체제 내의 정당들과 차별적 모습을 보여야함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기득권을 독점해 온 정당들과 경쟁하여 극복해야할 필요성을 지녔기 때문에 새롭게 부상한 좌파 정치는 급진적 성격을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주장은 라틴아메리카 21세기 급진좌파를 대표하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설명이 시도될 것이다.[3] 사례 연구는 다음의 제3장과 4장에서 시도될 것이다.

Ⅲ.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와 급진 좌파 정치의 부상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의 선두주자이다. 1998년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56.2%를 득표하며 승리한 차베스는 이듬해인 1999년 취임하였다. 차베스는 이후 2000년, 2006년, 2012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물론, 1999년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 2004년 대통령 소환 투표 그리고 2009년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승리하여 장기 집권을 넘어 영구 집권의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다.

'볼리바리아 혁명(Bolivarian Revolution)'과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명명된 차베스의 사회주의적 개혁 프로그램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었다.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참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사회 부문에서는 빈곤 퇴치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미션(missions)의 형태로 집행되었고, 빈곤과 빈부격차 등 특정 지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

3)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급진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 및 정권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그리고 니카라과의 오르테가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 에콰도르의 코레아 정권을 정도는 낮지만 포함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라틴아메리카의 21세기 급진좌파의 내용과 특징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권을 본 연구를 위한 사례로 선택하였다. 한편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정권의 경우, 정치경제적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중미 지역이라는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추가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왔다. 국가 역할의 확대라는 기조 속에 추진된 경제 정책은 석유 산업을 비롯한 국가 기산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 역할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산업 부분에서 소유권 및 통제권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역할의 확대는 재정 확대를 필요로 하는 차베스 정권의 통치권 강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혁명 볼리바르 운동-200(Movimiento Bolivariano Revolucionario 200)과 제5공화국 운동(Movimiento V [Quinta] República)에 이어 차베스가 창당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연합(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PSUV)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집권당의 지위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다.

차베스의 집권은 베네수엘라 정치에서 급진 좌파 정권의 부상을 의미하는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던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잘 제도화된 정당체제를 가지고 있던 나라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었던 제도화된 정당체제의 역사적 근원은 1958년 민주행동당(Acción Dempcrática, AD)과 사회기독당(Comité Político Electoral Independiente, COPEI)을 중심으로 체결된 푼토피호 협약(Pact of Punto Fijo)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부의 잦은 정치 개입과 정당 간의 정치 보복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헌법 수호와 선거 존중, 야당의 정부 참여를 통한 거국 내각 구성, 공동 정책과 정당 간 협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푼토피호 협약은 이후 차베스가 등장한 1990년대 초까지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와 정치를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각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를 대변하는 민주행동당과 사회기독당은 위계적으로 그리고 관료적으로 잘 구조화된 정당들이었다. 양 당의 조직은 베네수엘라 사회 곳곳에 견고한 조직망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적 흡인력을 바탕으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였는데, 이렇게 민주행동당과 기독사회당의 양 당을 주

축으로 한 베네수엘라 정당체제는 가부장적 개인에 의존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당체제와는 사뭇 다른 민주주의적 정당체제로 갈채를 받았다(Roberts 2003, 39).

〈표 2〉 푼토피호 체제와 베네수엘라 대통령, 1959-1993년

기간	대통령	정당
1959년 2월-1964년 3월	Rómulo Betancourt	AD
1964년 3월-1969년 3월	Raúl Leoni	AD
1969년 3월-1974년 3월	Rafael Caldera	COPEI
1974년 3월-1979년 3월	Carlos Andrés Pérez	AD
1979년 3월-1984년 2월	Luis Herrera Campins	COPEI
1984년 2월-1989년 2월	Jaime Lusinchi	AD
1989년 2월-1993년 5월	Carlos Andrés Pérez	AD

푼토피호 협약에 기반을 둔 베네수엘라의 정당체제는 1960년대 정치와 경제 각 측면에서의 중대한 역사적 과정을 거친 후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푼토피호 협약에서 배제된 베네수엘라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Venezuela, PCV) 및 쿠바 혁명의 영향을 받은 좌파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저항을 들 수 있다. 폭력적 무장 투쟁이 포함된 좌익 게릴라의 저항과 이에 대항한 정부군의 진압은 1960년대 기간 내내 베네수엘라 정치권을 괴롭혔다. 결국 1969년에 이르러 대부분이 무장투쟁을 중단하기 시작하며 일단락이 된 베네수엘라의 좌익 게릴라 투쟁은 양당제 정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사건으로는 1960년 실현된 역사적인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의 창립을 들 수 있다.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절대적 역할을 차지

하는 석유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안정적 확보와 분배는 베네수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1960년 베네수엘라의 석유장관 페레스 알폰소(Pérez Alfonso)의 주도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참여한 석유수출국기구의 창립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시장의 안정과 수입의 증대를 가져왔다. 또한 석유 자원이 지니는 전략적 지위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국가 수입의 증대는 향후 석유 산업이 베네수엘라 정치의 안정을 결정하는 경제적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라틴아메리카 정당체제를 비교하여 연구한 Mainwaring과 Scully(1995)의 연구에 따르면, 정당 간의 경쟁, 정당과 시민사회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관계의 존재, 정치권력 획득과 관련하여 정당과 선거라는 제도의 정통성의 존재, 그리고 안정적인 규칙과 구조에 입각한 정당체제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1973-93년 사이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의 정당체제는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 그리고 콜롬비아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제도화되어 있었다. 또한 Mainwaring과 Scully는 이러한 정당체제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Mainwaring과 Scully는 각각의 변수를 지표화 하여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정당체제의 제도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당간의 경쟁은 투표유동성을, 정당이 얼마나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가는 대통령과 의회 선거 간의 정당들의 득표율 차이, 정당과 선거의 정통성은 쿠데타 등의 헌정 중단 사례를 통해 그리고 정당체제의 안정성은 정당수명을 기반으로 지표화 하였다. 이에 따른 라틴아메리카 정당체제의 제도화는 〈표 3〉에 잘 나타나 있다.

〈표 3〉 라틴아메리카 정당체제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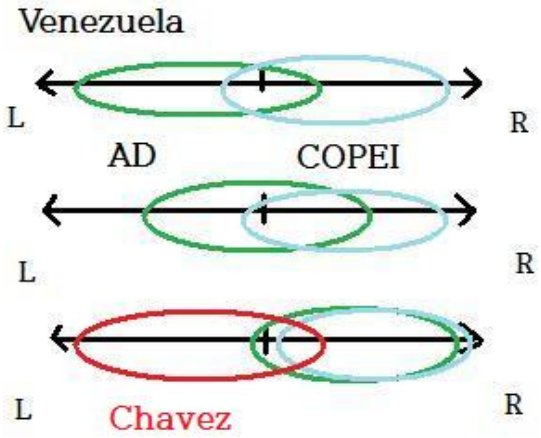
국가	투표 유동성	대통령과 의회 선거 득표율 차이	정당과 선거제도의 정통성	정당수명	총계
코스타리카	2.5	3.0	3.0	3.0	11.5
칠레	2.5	3.0	3.0	3.0	11.5
우루과이	3.0	3.0	3.0	2.5	11.5
베네수엘라	2.5	2.5	2.5	3.0	10.5
콜롬비아	3.0	3.0	2.5	2.0	10.5
아르헨티나	2.0	2.5	2.5	2.0	9.0
멕시코	1.5	2.5	1.5	3.0	8.5
파라과이	1.0	2.5	1.0	3.0	7.5
볼리비아	1.0	1.0	2.0	1.0	5.0
에콰도르	1.0	1.0	2.0	1.0	5.0
브라질	1.0	1.0	2.0	1.0	5.0
페루	1.0	1.0	1.0	1.5	4.5

3.0=high; 2.5=medium high; 2.0=medium, 1.5=medium low; 1.0=low를 각각 나타낸다.
출처: Mainwaring and Scully 1995, 17.

그러나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정당체제는 1980년대 말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행동당과 사회기독당이라는 두 정당을 중심으로 한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의 균열은 경제위기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오일 붐으로 비롯된 소득의 향상과 소득보다 더욱 커진 기대의 증대는 경제적 거품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1980년대 들어 서서히 위기를 야기하였다. 결국 198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의를 통해 긴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에게서 1970년대 호황의 기억은 점점 멀어져 갔고 다시 돌아가기 힘든 시절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오일 붐과 1976년 석유 산업 국유화는 국부의 규모를 늘렸으나 협조적인 양당제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 하에서 부패는 더욱 늘어갔다. 국민들의 불만

은 폭발하였으나 이를 대변할 정치세력은 실종되었다. 마침내 1989년 2월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대중들의 불만은 도시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안정을 되찾기 위해 군이 투입되었고 일천여명의 사망자를 남겼다. 1958년 푼토피호 체제의 종말을 가속화시킨 소위 카라카소(Caracazo) 였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기존 정당체제의 부패와 무능은 차베스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1993년 쿠데타에 실패한 차베스는 2년간의 투옥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Hellinger 2009, 471-476).

안정성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의 이러한 급격한 붕괴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관리할 정치세력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제도화된 베네수엘라의 기존 정당체제는 오랜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정치를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을 대변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기존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의 붕괴와 급진 좌파의 등장을 가져온 제도적 원인은 무엇일가?



〈그림 1〉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의 이념 분포의 변화

이와 관련하여 우선 앞서도 살펴본 Mainwaring과 Scully의 연구에서 유효정당의 수와 정당의 이념적 갈등과 관련된 부분을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에서 평균 유효정당의 수는 3.0을 기록하며 콜롬비아(2.1), 파라과이(2.2), 멕시코(2.2), 코스타리카(2.4), 아르헨티나(2.7) 등과 함께 정당의 수가 적은 나라에 속했으며, 이념적 갈등의 경우에도 코스타리카 및 콜롬비아와 함께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한다(Mainwaring and Scully 1995, 32). 따라서 Mainwaring과 Scully는 적은 수의 정당, 즉 양당제에 가까우며 이념적 갈등이 적었던 베네수엘라의 정당체제가 안정적이고 오랜 민주주의의 유지를 가능케 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푼토피호 체제가 가져온 이러한 이념적 안정성은 오히려 이념적 편향성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운 경직된 체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Coppedge(1994)와 Crisp(2000)의 연구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 Coppedge는 베네수엘라의 위계적이고 관료적으로 잘 조직된 민주행동당과 기독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체제의 과제도화(overinstitutionalization)가 시민들의 비공식적 요구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Crisp는 1958년 성립된 베네수엘라의 정치제체는 정치적 안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경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를 배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라는 좁은 간극의 이념적 차이를 가진 민주행동당과 사회기독당 중심의 양당 체제는 푼토피호 협약이라는 협조적 정치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화되었고 양당 간의 이념적 차이가 희박해졌다. 결국 이는 경제 위기의 국면에서 두 정당이

다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빈부 격차가 상존하는 베네수엘라에서 오일 붐이 종식된 상황은 급진적 변화를 약속하는 정당을 필요로 했으며, 양당제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정당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급진 좌파의 부상은 역설적이게도 양당제에 기초한 기존 정당체제가 실패한 결과인 것이다.

Ⅳ. 볼리비아 정당체제와 급진 좌파 정치의 부상

볼리비아 사회주의운동당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2005년 12월 18일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모랄레스는 1차 직접 투표에서 53.7%의 과반수 득표로 2차 투표가 필요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모랄레스의 대통령 당선은 볼리비아 역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모랄레스는 '180년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인구의 과반수가 원주민임에도 원주민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던 볼리비아 정치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Yi 2010, 148). 또한 모랄레스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이념적 유사성을 보이는 소위 라티아메리카의 21세기 급진 좌파의 하나로 에콰도르의 코레아 정권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급진 좌파가 일국에 국한되는 정치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한편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는 모랄레스가 소속된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Instrument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이하 MAS)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MAS는 27명이 정원인 상원에서 12석을 그리고 130명을 선출하는 하원에서는 72명의 의석을 확보하여 제1당이 되었다.

집권 후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의 핵심 산업인 천연가스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국유화, 토지 소유 제한을 통한 토지개혁 그리고 원주민 권리 신장 등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모랄레스의 개혁 정책은 2009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신헌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구체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모랄레스 정권은 대외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에콰도르의 코레아,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등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정권들과 함께 볼리바르 동맹(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ALBA)을 맺고 신자유주의 경제기조와 미국 중심의 지역통합 노력에 대응하고 있다.

2009년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대통령 재임이 가능해진 모랄레스는 2009년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MAS는 36명을 뽑는 상원에서는 26석 그리고 130명을 뽑는 하원에서는 88석을 획득하며 상하 양원에서 과반수를 가진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2005년 이후 모랄레스와 MAS가 이룬 정치적 승리는 1982년 민주화 이후 볼리비아 정치에서 형성되었던 보수정당 중심의 연정정치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모랄레스와 MAS는 2005년과 2009년 선거를 통하여 1982년 민주화 이후 볼리비아 정치를 지배했던 기존의 3당(MNR-MIR-ADN) 중심의 연정정치의 종식을 가져왔다(Sánchez 2008, 323). 특히 볼리비아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인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의 주역으로, 이후 반세기 동안 볼리비아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민족주의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MNR)은 2005년의 하원과 상원 선거에서 각각 7석과 1석을 획득하는데 그치며 몰락하였다(Yi 2010, 148).

〈표 4〉 볼리비아 대통령과 집권 연합, 1982–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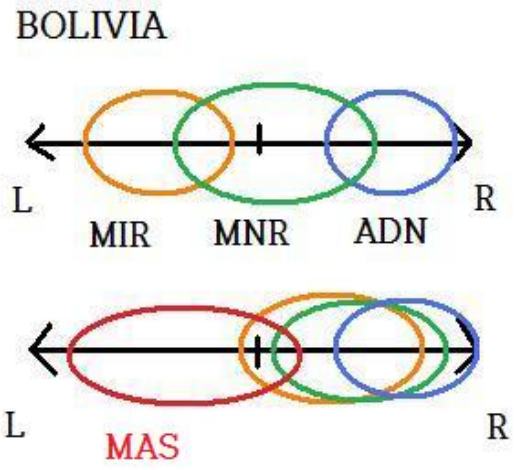
취임 연도	대통령	대통령 소속 정당	집권 연합
1982년	Hernán Siles Zuazo	MNRI	MNRI/PCB/MIR (*Unión Democrática Popular*)
1985년	Víctor Paz Estenssoro	MNR	MNR/ADN (*Pacto por la Democracia*)
1989년	Jaime Paz Zamora	MIR	MIR/ADN (*Acuerdo Patriótico*)
1993년	Gonzalo Sánchez de Lozada	MNR	MNR/MBL/UCS (*Pacto de la Gobernabilidad & Pacto por el Cambio*)
1997년	Hugo Bánzer Suárez	ADN	ADN/CONDEPA/MIR/UCS (*Megacoalición*)
2002년	Gonzalo Sánchez de Lozada	MNR	MNR/MIR/UCS
2006년	Evo Morales	MAS	MAS

1982년 민주주의 이행과 함께 성립한 3당 중심의 볼리비아 정당체제는 이념적 기반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즉 중도 좌파 정당인 좌익혁명운동당(Movimiento de la Izquierda Revolucionaria, MIR), 중도 성향의 민족주의 정당인 MNR, 그리고 우파 정당인 민족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 Nacionalista, ADN)은 볼리비아 정치의 각 이념적 지향을 기반으로 삼았다. 사실 볼리비아의 정당체제는 이러한 3당이 주요 정당들이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군소 정당도 함께 존재하였다. 택시에서도 전당대회가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서 소위 '택시정당'이라고 불렸던 다수 군소 정당의 존재는 볼리비아의 독특한 대통령제에서 비롯되었다.

혼성 대통령제(hybrid presidentialism)[4] 또는 의회주의 대통령제

4) Gamarra 1997.

(parliamentarized presidentialism)[5]라고 불리는 볼리비아의 대통령제는 직접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결선투표가 행해지는 독특한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가졌다.[6] 필연적으로 정당 간의 선거연합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러한 혼성 대통령제는 의회에서 정당 간의 끊임없는 선거연합을 초래하였으며 볼리비아 정당체제의 게임의 법칙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2〉 볼리비아 정당체제와 이념적 분포

우선 혼성 대통령제는 선거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소규모 군소정당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러한 다수 군소정당의 명멸은 정당 체제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

5) Alpert, Centellas, Singer 2010.

6) 이 제도에 의하면 1차 직접선거에서 과반수(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 3위 득표자(1994년 헌법 개정 이전) 또는 1, 2위 득표자(1994년 이후)가 새로 선출된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당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혼성 대통령제는 이념을 초월하는 정당 간의 선거 연합을 가져왔다. 즉 1차 투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의회에서 대통령 당선을 노려 1, 2, 3위 정당 간의 선거연합 결성이 빈번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도 차기를 노리는 야당 세력들은 이념을 초월하여 연합하였다. 이러한 이념을 초월한 정당 간의 이합집산은 정권을 바꿔가며 반복되었다. 예를 들어 군부 정권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우익 정당 ADN은 1985년에는 MNR의 연합 파트너였다가, 1989년에는 좌파 정당인 MIR의 연합 파트너가 되었다(Gamarra 1997). 볼리비아의 각 정당들은 권력 획득을 위하여 이념을 초월하는 선거 연합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의 반복은 주요 3당 간의 이념적 경계가 흐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볼리비아의 정당체제는 보수 정당들로 이루어진 다당제 체제가 되었다. 이 체제는 정당 간의 이념적 차이가 제한적이고 연합 정치를 특징으로 하였다(Mayorga 2004). 특히 각 주요 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며 1985년 경제 위기로 시작되어 이후 점차 심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정당들의 보수화를 가속화 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결국 정당 간의 이러한 이념적 차별성의 종말은 정당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또한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실망과 반발 그리고 상존하는 빈곤과 빈부격차와 중첩되어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 계층으로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원주민과 빈민들은 기존 정당 체제 내에 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을 갈망하였다.

결국 주요 3당(MIR-MNR-ADN)을 중심으로 한 볼리비아의 1982년 체제는 모랄레스와 MAS를 중심으로 한 급진 좌파 정치에 의해 붕괴되었다.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기존 정당체제의 이념적 균형의 부재 즉 정당체제의 우경화와 좌파 정치의 부재가 급진 좌파의 출현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례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당체제의 이념적 균형의 붕괴와 우경화는 특유의 혼성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원인을 제공했으며 당파적 또는 정치적 이익에 몰두하여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기존 정당들에 의해 완성되었다.[7)]

Ⅴ. 결론

본 연구는 21세기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집권한 좌파 정치 중 특히 급진 좌파의 부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정당들의 실패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급진 좌파 집권의 주요한 동인라고 주장하고 있는 본 연구는 특히 기존 정당체제에서 나타난 이념적 균형의 부재 즉 정당체제의 우경화와 좌파 정치의 부재가 급진좌파 정치가 부상하고 성공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과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권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선 베네수엘라 사례는 1958년 푼토피호 체제에서 비롯되었다. 즉 중도 좌파 민주행동당과 중도 우파 사회기독당 간의 협조적 정치 상황을 제도화한 폰토피호 협약은 베네수엘라 정당체제의 보수화로 이어졌다. 정당 간의 협조적 정치 행위는 석유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부패의 심

7) 볼리비아의 2009년 신헌법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의회결선투표를 폐지하고 직접선거에 의한 결선투표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40% 이상 득표하고 2위와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경우 2차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화를 가져왔으며, 호황이 끝나고 찾아온 경제위기와 경제 구조조정은 정당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권력을 독점하며 이념적으로 보수화된 두 정당은 경제 위기 속에서 빈곤과 빈부격차의 확대로 불만이 커진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급진 좌파 프로그램을 제시한 차베스가 보수적 양당제에 기초한 기존의 베네수엘라 정치체제를 대체하였다.

볼리비아 사례 또한 본 연구가 주장하는 가설, 즉 기존 정당체제의 우경화와 좌파 정치의 부재가 급진좌파 정치 부상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당 체제의 우경화는 1982년 민주화 이후 정립된 3당 중심의 정당체제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직접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대통령의 선출을 의회가 행하는 볼리비아 특유의 혼성 대통령제는 정당 간의 이념을 초월하는 선거 연합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선거연합은 정당 체제의 보수화로 이어졌다. 즉 이념이 서로 다른 정당 간의 선거 연합의 반복은 정당들의 탈이념화를 가져와 정당체제 전체의 보수화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처방으로 실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맞물리며 정당체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급진적 대안을 제시한 모랄레스와 사회주의운동당(MAS)은 1982년 민주화 이후 성립된 체제 전체를 대체하게 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등장한 라틴아메리카의 급진 좌파 정치는 기존 정당 체제의 실패, 특히 정치적 우경화와 좌파 정치의 부재를 원인으로 부상하였다. 즉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서 부상한 좌파 정치는 기존 정당들과의 경쟁을 넘어 기존 체제 전체와의 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좌파 정치가 급진적 성격을 띤 가장 큰 원인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의 의미와 과제를 지니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 부상의 원인을 보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좌파 정치 부상 연구에 설명력 있는 변수의 추가를 시도함으로써 향후 비교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라틴아메리카 정당과 대통령제 연구를 위한 중요한 단서의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통령제와 정당 연구자들에게 각광 받던 제도화된 양당제가 강력한 하나의 급진 좌파 정당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체제로 탈바꿈한 베네수엘라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과제로 가진 국가들에게 적합한 정치체제 모색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정치 안정을 가져온 양당제에 기초한 대통령제가 빈부 격차와 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정교화를 위해 사례의 확장과 분석 방법의 심화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다른 지역의 급진 좌파의 사례의 추가와 분석 방법의 심화는 후속 연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Alpert, Alexandra, Miguel Centellas, Matthew M. Singer(2010), "The 2009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on Bolivia," *Electoral Studies*, Vol. 29.

Artaraz, Kepa(2012), *Bolivia: Refounding the Nation*, Pluto Press.

Buono, Dello and Dell Lara(2006), "Introduction: Neoliberal Crises and the Resurgent Left in Latin America," *Critical Sociology*, Vol.32, Issue 1.

Castañeda, Jorge G(1994), *Utopia Unarmed: The Latin American Left after the Cold War*, Vintage Books.

Castañeda, Jorge G(2006), "Latin America's Left Turn," *Foreign Affairs*, May/June 2006, Vol.85, Issue 3, pp.28-43.

Cleary, Matthew R(2006), "'A Left Turn' in Latin America?: Explaining the Left's Resurgence," *Journal of Democracy*, Vol.17, No.4(October).

Colburn, Forrest D(2002), *Latin America at the End of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ppedge, Michael(1994), *Strong parties and Lame Ducks: Presidential Partyarchy and Factionalism in Venezuela*, Stanford University Press.

Crisp, Brian(2000), *Democratic Institutional Design: The Powers and Incentives of venezuelan Politicians and Interest Groups*, Stanford University Press.

Figueroa, Víctor M(2006), "The Bolivarian Government of Hugo Chávez: Democratic Alternative for Latin America?," *Critical Sociology*, Vol.32, Iss.1.

Flores-Marcías, Gustavo A(2012), *After Neoliberlaism? The Left and Economic Reforms in Lat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Gamarra, Eduardo A(1997), "Hybrid Presidentialism and Democratization: The Case of Bolivia," in Scott Mainwaring and Matthew Soberg Shugart (eds.).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llinger, Daniel(2009), "Venezuela," in Harry E. Vanden and Gary Prevost

(eds.). *Politics of Latin America: The Power Game*,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Kirk A. Hawkins, Juan Pablo Luna, Guillermo Rosas, Elizabeth J. Zechmeister(2010), *Latin American Party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tsky, Steven and Kenneth M. Roberts(2011), "Introduction: Latin America's "Left Turn" A Framework for Analysis," in Steven Levitsky and Kenneth M. Roberts (eds.). *The Resurgence of the Latin American Lef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adrid, Raúl L(2010), "The Origins of the Two Lefts in Latin Americ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25, No.4, pp.2010-11.

Mainwaring, Scott and Matthew Soberg Shugart (eds.)(1997),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inwring, Scott and Timothy R. Scully (eds.)(1995),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Stanford University Press.

Mayorga, JA.(2004), *La crisis del sistema de partidos: causas y consecuencias. Caso Bolivia, in: Partidos Politicos en la Region Andina: Entre la Crisis y el Cambi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Panizza, Francisco(2005), "Unarmed Utopia Revisited: The Resurgence of Left-of Centre Politics in Latin America," *Political Studies*, Vol.25.

Roberts, Kenneth(2002), "Social Inequalities Without Class Cleavages in Latin America's Neoliberal Era,"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36 (Winter).

Roberts, Kenneth M(2003), "Social Correlates of Party System Demise and

Populist Resurgence in Venezuela,"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45, No.3 (Autumn 2003).

Rochlin, James(2007), "Latin America's Left Turn and the New Strategic landscape: the case of Bolivia," *Third World Quarterly*, Vol.28, No.7, pp.1327-1342.

Sánchez, Omar(2008), "Transformation and Decay: The De-Institutionalisation of Party Systems in South America," *Third World Quarterly*, Vol.29, No.2, pp.315-337.

Walker, Ignacio(2008), "The Three Lefts of Latin America," *Dissent*, Fall 2008.

Weyland, Kurt(2004), "Neoliber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A Mixed Record,"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46 (Spring).

Yi, Sang-Hyun(2010),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arty: the Case of MAS(Movimiento al Socialismo) of Bolivia,"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23, No.4, pp.147-168.

Yi, Sang-Hyun(2011), "The emergence of the Leftist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Latin America: Its Causes, Characteristics and Future," *Webzine Latin Energy & Resources*, Vol.1, Latin American & Caribbe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pp.23-26.

논문투고일자: 2012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자: 2012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2월 6일